

# 광주·전남 ‘1호 통합단체장’ 선출…몸집 커지고 판세 ‘리셋’

기존 시장·지사 후보군에 ‘제3의 인물’ 출마설…지방선거 지각변동  
기존의 셈법으로는 승리 장담 어려워 합종연횡·이합집산 치열할 듯

광주시와 전남도가 시·도 대통합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이 이뤄질 경우 지방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선출했던 광역단체장 선거가 양 시·도 통합 단체장을 뽑는 선거로 몸집이 커지면서 기존 지방선거 판세가 사실상 ‘리셋’됐고, 일부 후보군의 사퇴와 합종연횡도 예측되고 있다. 또한, 기존 광주시장 후보군과 전남지사 후보군 이외에 ‘제3의 인물’ 출마설도 나오면서 오는 6월 광역단체장 선거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후보군이 10여명에 달하면서 당이 예고했던 조별 경선의 첫 실험무대가 광주·전남이 될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광역 단체장 선거의 지각 변동에 따라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선거 등도 덩달아 요동치는 ‘판의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11일 민주당과 정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을 ‘전국 1호 행정통합’ 대상으로 지목하고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단체장’ 선출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춘 ‘광주전남특별시’ (가칭)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돼 지역 정치권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초광역 통합단체장 선거가 현실화되면서 자전타전 거론되는 후보군만 10여명에 달하는 등 대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광주권에서 강기정 현 광주시장과 민형배 (광주 광산)·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문인 광주 북구정장, 이병호 호남특위 수석 부위원장 등 5명이 거론된다. 문인 청장은 최근 구청장 사퇴를 반복하면서 ‘3선 기초단체장 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남권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신정훈 (나주·화순)·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 등 4명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의 ‘낙하산’ 참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불출마 여론이 높다.

통합 광역단체장의 몸값이 커지면서 국회의장도 전이 확실시 되는 박지원 (해남·완도·진도) 의원의 도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당 안팎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거물 정치인이라는 점과 지역내 높은 인지도 면에서 광주·전남의 첫 통합 단체장 상징성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에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구가 광주와 전남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셈법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첫 선거인만큼 특정 후보 1인이 320만 시·도민의 지지를 독식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후보 간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권, 전남 서부권, 전남 동부권으로 나뉘는 지역 정치 지형상 각 권역을 대변하는 후보들 간의 연대가 선거 판세를 뒤집을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호남에서의 경선 흥행을 통해 수도권에서 민주당 지지세를 결집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경선에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다른 지역의 지방선거에서 미세한 표차이로 보수에 패배했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민주당의 최대 텃밭인 광주·전남의 경선 흥행은 수도권의 호남인과 민주당 지지층의 관심을 끌어들 수 있는 경선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선 룰 또한 주요 관전 포인트다. 장정래 대표가 ‘인위적인 컷오프 배제’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다수의 후보가 참여하는 ‘조별리그’ 방식의 경선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조별리그가 이뤄진다면 유권자 한 명이 각 조에 1표씩 모두 2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 후보간 연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1~2차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들이 생존 후보와 어떤 방식으로 손을 잡느냐에 따라 ‘삼국지’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통합단체장의 위상이 격상된 만큼 후보의 ‘제공’도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통합 광주전남특별시장장은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한 장관급으로 서울시장에 준하는 막강한 위상을 갖게 된다”며 “단순히 현역 단체장이 인지도 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높아진 시·도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난과 비전 경쟁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기정(왼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 내용을 전달하는 중 서로 악수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오늘 협의체 띄우고 2월 특별법 국회 통과 ‘총력’

광주·전남 통합 ‘속도전’  
2월까지가 성패 가를 골든타임

오는 7월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행정통합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2일 통합 추진협의체를 출범하고 15일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1월 한 달간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 시·도민 공론화와 정치권 설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오는 1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이어 14일 이후에는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범시·도민 행정통합추진협의회’ 발대식도 준비하고 있다.

통합의 핵심 열쇠인 ‘특별법’ 제정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밤낮 없이 의견을 조율하며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수백 개의 조항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빠지기를 반복하고 있

는데, 시·도민의 이익을 최대한 담아낼 그릇을 만들기 위해 일요일인 11일까지 초안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초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항들은 의회 의견 청취와 부처 협의의 과정을 거치며 정제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는 오는 15일을 특별법안 마련의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이날 국회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 (간담회)가 열리며,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다. 이후 16일에는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일정표를 보면 2월까지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다. 1월 셋째 주 법안이 발의되면 곧바로 1월 임시국회 (17~23일)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어 2월 임시국회 (2월 3~28일)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야 물리적으로 7월 출범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시·도민 공론화 작업도 병행된다. 추진협의회 구성 직후인 1월 넷째 주부터는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2월 국회 문턱을 넘으면 3월부터는 본격적인 통합 준비 체제로 전환된다. 광주·전남 특별시 출범 준비단이 가동되고 조직·인사·재정

등 행정 시스템 통합 작업이 6월까지 진행된다. 이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사적인 첫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시가 공식 출범하는 로드맵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특례 조항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하고, 시도 의회의 동의와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속도전에 치우쳐 충분한 숙의 과정이 생략될 경우 통합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사실상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통합시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치력을 총동원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 시·도민에게 통합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요 일정

- ▲ 12일 :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구성
- ▲ 14일 이후 : 범시·도민 행정통합추진협의회 구성 및 발대식
- ▲ 15일 : 국회 토론회 및 특별법안 마련 시한
- ▲ 16일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목표)
- ▲ 15~16일 : 정부 발표 (김민석 총리, 장소 미정)

- ▲ 17일~23일 :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 심사 (1월 임시회)
- ▲ 1월 말 : 권역별 시·도민 설명회 개최
- ▲ 2월 3일~28일 : 국회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 (2월 임시회)
- ▲ 3월~6월 : 광주·전남특별시 출범 준비 (행정시스템 통합 등)
- ▲ 6월 3일 : 전국동시지방선거 (통합특별시장 선출)
- ▲ 7월 1일 :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공식 출범

## 2026-1 광신대학교 평생교육 PROGRAM

#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2026. 1. 12.(월) ~ 2. 13.(금)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중앙도서관 1층 교학처), 이메일 신청 (gsu23417@naver.com)
- 교육문의 062)605-1023, 1063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지소로 36

### 3월 초 개강

- 색채심리상담 전문가 양성과정 \_ 화 9:00
- 아로마 테라피스트 과정 \_ 월 10:30
- 파크골프 지도자 2급 과정 \_ 금 9:00 / 토 9:00
- 흥미만점 영어회화 \_ 금 14:00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www.kwangshin.ac.kr

### 2026학년도 1학기

# 비전신학원 신입생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 이상으로서 담임 교역자 추천을 받은 자  
※단, 전문인 사역자 과정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문의 062)605-1023, 1063

2년 4학기 [주 2일 야간]  
(월·대면 / 화·비대면)

- 여전도사 과정
- 중직자 과정
- 평신도 사역자 과정